

與野 대표, 각각 천안·서울 종로 방문... 후보자 본격 지원

한동훈, 결의대회 취소 후 지역순회 충청지역 '캐스팅보트' 고려 일정

이재명, 광상언 후보 사무소 방문 후 창신시장서 노 전 대통령 의지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5주 남짓 앞둔 4일, 나란히 지역에 방문했다.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격전지 순회 출발점으로 충남 천안을 선택했다. 충남 천안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갑·을·병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한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천안 갑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단수추천(단수공천)했고, 을·병 지역구는 경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기존에 계획됐던 '4·10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총선이 불과 5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원보다는 시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대비 지역 방문 첫 일정이 충남 천안인 이유는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천안 방문 일정에 대해 "오늘부터 저희 후보가 정해진 지역 위주로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 시민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면서 "충청 시민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오겠다"며 각 오를 다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소재 백석대를 방문, 새 학기를 시작한 대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했다. 이어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한편 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을 시작

으로 충북 청주,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용인 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를 찾았다. 종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언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지역이다. 광상언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 민주당 출신 금대섭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경쟁한다.

또 종로는 역대 대통령 세 명을 배출한 '정치 1번지'이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보수·진보정당 전적을 살펴보면 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광상언 종로구 후보(오른쪽)가 4일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8대 총선 당시엔 보수정당이 승리했지만, 19대 총선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탈환에 성공했다. 그 이후 21대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종로에 출마한 광상언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창신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꿈인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대동 세상을 광 후보가 종로에서 이뤄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희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역사적 전진에 광 후보가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신시장으로 이동한 이 대표는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모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됐는가"라며 "만드시 심판하자"고 외쳤다.

시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살림을 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될 때"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임종석 "민주당 결정 수용, 당 잔류"... 갈등 봉합 수준

임, 전날까지 새로운미래와 협상 이재명 "원하는 공천 못해 안타까워 모두 힘 합쳐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배제 논란으로 탈당까지 검토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돌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실장과 전날(3일)까지 협상을 했던 새로운미래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임 전 실장 대신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고위의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와 설훈 의원의 탈당 흥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까지 더해지며 비명계 중진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자 이날 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물밑

협상을 지속하며 '세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명계를 규합하는 '민주연합' 구상을 꼬이게 됐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실은 어제(3일) 저녁 7시에 이 공동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임 전 실장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이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고문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구태여 시간이 바빠서 연기했겠나"라며 "그걸 연기했을 때는 광주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다"며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임 전 실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 상으로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라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향후 임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다"며 "임 전 실장도 당과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는 "먼저 광주전남의 많은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지난 대선 때 저는 후보보다 더 많이 유세하며 노력했으나 결국 패배해 미안하다. 특히 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것이 몹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추천제' 논의 시작

여당 강제 지역에 적용될 것 전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추천제는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TK) 등 여당 강제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 공모 및 선정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일반시민 등 외부의 다양한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갑에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면, 당은 일정 기간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한 후 결정하

다고 보면 된다.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추천제가 대두된 것은 국민의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었을 시점부터였다.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현역 불패' '친윤 공천'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논란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교체된 이들은 13명(14.44%)이다. 4년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천이 배제된 현역의원

만 19명이었으며, 교체율은 40%가 넘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이 무리한 '물갈이'를 하면서 당력이 흩어져 패배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관위에서 여러 논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온 방안인 셈이다.

또 지역구 공천 결과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며, 여성 후보는 전직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공천이 곧 당선'인 텃밭 지역에서 정치신인을 기용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 현역의원들은 불출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전날(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저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신 곳을 비우겠다는 것"이라며 "그곳을 싹 비우고 개파나 당과 관계없이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해결하지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텃밭이면서도 현재까지 공천이 보류된 지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을(박성중), 강남갑(태영호)·을(박진)·병(유경준)과 대구 동갑(류성걸), 북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 경북 구미을(김영식), 울산 남구갑(이체

익) 등 지역에 대한 공천을 보류했다.

특히 강남갑·을의 태영호·박진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을과 서대문을로 이동했다. 지역구가 비워진 만큼 전략공천도 예상됐지만,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 남구갑의 이체의 의원의 경우 컷오프(공천배제)가 거론되면서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과는 5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공관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토의해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